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26과 주야(晝夜)의 표상으로 계시된 개혁의 역사(1)

[단8:9-14]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람 모양과 짐승의 모양으로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야(晝夜)의 표상으로 교회의 역사를 계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될 것을 가르쳐주셨다. 2300주야에 대한 계시는 종교와 신앙 개혁에 대한 계시이다. 이 개혁이 이루어질 역사적 시점을 가르치는데, 그보다 먼저 있을 구속 사업이 이루어질 역사적 시점에 대하여 다니엘 9장에서 가르친다. 이제 연대적 예언의 계시를 찾아가보자.

1. 양과 염소가 표상하는 나라

[단8:2-7]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도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이 계시는 다니엘 7장의 계시를 본 2년 후에 보여준 계시이다. 벨사살 왕 3년 기원전 551년경이다. 이 짐승들은 양과 염소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는 동물들이다. 이런 동물로 표상한 것은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기여를 하는 나라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이다.

[단8:20,21]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시킨 나라이다. 헬라는 유대 나라가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자치(自治)할 수 있도록 한 나라이다. 이 나라들은 겉보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왔으나 속으로는 표 나지 않게 내부로 침투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세력이 되었다.

이것은 또 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전조(前兆)이기도 하다.

헬라로 표산된 털이 많은 숫염소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헬라의 첫째 왕이라고 하였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 그는 아버지 필립 2세의 뒤를 이어 약관 20세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다. 그의 선생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13년 동안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이것을 그 뿔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나타내었다(단8:5). 7장에 날개 넷이 달린 표범의 표상과 동일한 신속성에 대한 것이다.

2. 염소의 머리에 난 네 뿔의 정체

[단8: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단8: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것은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죽은 후에 그의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환락에 빠져 지내다가 습지열이라고하는 일종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33세를 일기로 죽었다. 그가 죽을 때 휘하 장군들이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강한 것은 건주어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12년 동안 장군들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였는데, 알렉산더의 어린 아들을 옹립하여 통일제국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안티고누스의 세력과 알렉산더의 유언대로 강한 자가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네 장군의 연합 세력이 각축을 벌였다. 갓난아이 알렉산더의 아들이 죽게 되자 안티고누스는 스스로 통일 헬라의 왕으로 자처하였는데, 이 네 장군이 연합하여 대적하였고 기원전 301년 입수스 전투에서 안티고누스가 전사하자 네 장군은 알렉산더의 영토를 사분하여 한 부분씩 차지하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예언은 문자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네 장군과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이렇다.

동쪽 - 셀루쿠스(페르샤, 소아시아 일부, 메소포타미아)

서쪽 - 캄산더(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남쪽 - 프톨레미(이집트와 팔레스틴 일부)

북쪽 - 리시마쿠스(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일부)

3. 나중에 난 작은 뿔과 2300주야

[단8:9-14]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단8:23,24]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홀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뿔은 네 뿔이 난 후에 나타난 뿔이다. 그 나타나는 상황이 7장에 11째 뿔과 비슷하다. 이 뿔은 네 뿔 중의 한 뿔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뿔 중의 어느 한 뿔이 있는 같은 방향에서 나왔다고 번역해야 바른 번역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그 중 한 뿔에서”라고 번역하였으나 원문은 “그 하나에서”이다. 여기 “그”로 번역한 “메헴(!h,m)”은 남성 삼인칭 복수 전치사로서 여성 명사인 뿔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받을 수 있는 선행사는 8절에 있는 “사방”이다. 그러므로 “그 중 한 뿔에서”가 아니고 “그 한 방위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즉 네 뿔 곧 네 나라가 있는 그 어느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단8:23,24]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홀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작게 일어나서 크게 되는 뿔이 나타날 때를 지적하여 예언하였다. 다니엘의 관심은 이 뿔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고 나타날 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세력이 일어나는 사정을 암시한다. 이것은 로마인데,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상태를 적절하게 묘사하였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모두 큰 전쟁들을 치르고 패권(霸權)을 잡았다. 그러나 로마는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어 각축을 벌이는 중에 그 세력이 약해졌을 때에 큰 전쟁 없이 세력을 잡은 것이다. 7장에서는 짐승으로 제국을 표상했으나 8장에서는 그 세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며, 그 세력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심이다. 그것도 제사 동물로 표상된 나라의 권세를 슬그머니 차지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왕이 애굽을 침략했을 때에 출병하여 그들을 돌아가도록 위협하였고 북방 세력인 시리아 왕은 로마의 위협을 거역할 수 없어서 퇴각함으로써 로마가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헬라와 파르시아의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네 왕국의 세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세력을 잡고 심히 강대하게 자랐으며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함께 보여줌으로 7장의 작은 뿔과 동일한 성질의 세력임을 보여준 것이다.

4. 성소가 정결하여짐

[단8:13,14]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깃뺄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소정결은 성소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 8:9-14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성소정결에는 세 가지 사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성소 회복. 둘째, 제사 회복. 셋째, 진리 회복이다.

2300주야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성소 회복은 하늘에 참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성소를 깨닫게 된 결과

로 당연히 제사 문제가 회복되었다. 이런 일들이 회복되는 과정에 진리가 회복될 수 있었다.

[히9:11,12]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8:1-4]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히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밋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73:16,17]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성소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출25:8,9]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마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성소 제도적 표상으로 예언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소를 깨달으면 은혜와 진리를 다 회복하게 된다. 2300주야 끝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의 결과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성립되었다.

성소정결은 결국 진리와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언한 것이다. 재림교회는 개혁을 완성하는 교회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재림성도로서 정결한 성소들이 되어 개혁이 완성되는 인격들이 되어야 한다. 그 표본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개혁을 이룰 때 이런 인격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 과에서 계속 배우기로 하자.